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5987

*2008*년 *2*월
국어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국어교과서 수록 고전시가 지도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하 늘

국어교과서 수록 고전시가 지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s of Classic Poetry in Korean textbook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하 늘

국어교과서 수록 고전시가 지도방안 연구

지도교수 김 정 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하 늘

박하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사 2

Ⅱ. 고전시가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7*

1. 설문을 통해 본 고전시가 교육의 현황 7

2.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 15

가. 해석 중심의 수업 15

나. 교사 중심의 수업 16

다. 지식 위주의 평가 19

Ⅲ. 고전시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

1. 고전시가 지도에서 고려할 점 20

2. 고전시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22

가. 작품 감상 중심의 수업 23

나. 학습자 중심의 수업 24

다. 평가 방식의 다양화 26

Ⅳ. 바람직한 지도방안 *28*

1. 해당 교과서 단원의 분석 28

가. 단원의 개관 28

나. 단원의 학습목표 30

다. 교수 학습의 실제 31

2. 구체적인 수업 활동 35

가. 형상성 관련 활동 37

나. 음악성 관련 활동 38

다. 함축성 관련 활동 40

라. 해석 관련 활동.....42
마. 창의성 관련 활동.....44

Ⅴ. 결론.....*47*

■ 참고문헌.....*49*
■ 부　　록.....*52*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s of Classic Poetry in Korean textbook

Ha-neul Park.

Advisor : Prof. Jeong-Ju Kim.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We have experience various aspects of life through literary works because literature is a reflection of life. Therefore literature education has to develop leaner's ability of understanding works actively and sympathizing with feelings and ideas which are existed inside of these rather than focusing on analysis of the contents.

That is the same as classic poetry education. Classic poetry is easily accepted as the past, but it is valuable because it does not only succeed to historical tradition which is made by gripping forerunners' spirit and masterpieces of national culture but also enriches present life with existing value.

The study found a problem that classic poetry which has educational value has treated as fixed image by learners, not as familiar things. So we started it to make students have an affinity and interesting with classic poetry.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have a thorough grasp of the problem on classic poetry education and to change it for better. Ultimate purpose is presenting a teaching plan which make student able to reorganize works in relation to their own life by internalizing feelings and values from appreciation of works by themselves. The study is expected as a way to form desirable understanding about tradition and it will go for enhancing literary attainment.

Chapter II, it explores the development of classic poetry education by looking at classroom environment, and diagnoses drawbacks to education in detail based on in-depth research. As an analysis of each research item, there are several

problems to be pointed out: the classroom activity which adhere to translation of texts, passively accepting learners in traditional teaching method, and just answering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 of the basic type.

Chapter III examines more topics related with concerns about teaching Classic poetry and has more directions for the future based on several considerations to be taken in precious chapter. The education of Classic poetry should be focused on appreciation of poetry and on the lecture whose attention is becoming students' interest.

In addition, classroom testing should be changed into a variety of performance-based assessment, which is not just offering paper-and-pencil selective response tests of a plethora of separate items but encouraging student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earning.

Chapter IV, related previous chapters, presents the classroom activities for Classic poetry; <Chungsanbyulgok>, <The fisherman's calender>, and <Gwandongbyulgok> discussed at Chapter II and III. In order to consider reality when one i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rograms, this chapter concentrates on ways of devising a plan and analyzing the goals, and includes some activities associated with.

Good classic poetry education aims broadly to make students actively take participate in negotiating what they learn. Thus, their ideas are rearranged, modified, or expanded as their own product is created. Hopefully, throughout the process, the education of classic poetry will have to change a fixed lock-step teaching into participatory learning: learners can internalize the writers' feelings and thoughts with interests when depending more on oneself rather than the teacher, therefore, they are able to discover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classic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학은 삶의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 교육은 작품의 내용 분석에 치중하기보다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그 속의 정서와 사상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고전문학 교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고전문학은 단순히 과거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우나, 선인들의 정신세계를 파악하고, 민족 문화의 정수를 받아들여, 역사적 전통을 계승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문학의 형식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오늘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현재적 가치 또한 지니고 있는 소중한 것이다.[1)]

이런 교육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고전문학이 오늘날과 다른 시대의 것이라는 이유로, 거리감을 느끼며 어렵고 낯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어 및 한문 투로 쓰여진 작품을 현대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각각의 문학작품들을 영어 문장 번역하듯 대하며, 시험을 위한 암기의 대상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교사들도 작품의 감상보다는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르치고, 장르적 특징, 문학사적 의의 등을 설명해주는 것을 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 속에서 고전은 학습자들에게 점점 더 다가가기 힘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전문학 중 특히 고전 시가의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특별히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을 쌓기 위해 혹은 흥미가 있어서 고전시가를 접할 기회는 흔치 않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고전시가를 어떤 방식으로 배웠고, 그에 어느 정도 공감해내고 감상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고전시가 작품들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는 달라진다. 학교에서의 고전시가 교육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사는 학습자가 고전시가 작품을 친근한 대상으로 느끼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전시가는 어렵

1) 이상익 외,「고전문학 왜 가르쳐야하나」,『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p.17.

고 딱딱해서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보편적인 삶의 정서를 노래로 표현한 것으로 현대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단지 조금 다른 언어,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되었을 뿐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학생들은 고전시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가 고전시가를 기피하여 그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고전시가를 친숙하게 받아들여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해내고, 자신의 감상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해 낼 수 있을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본고가 지향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의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들이 고전시가 작품을 감상하며 얻은 정서와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형성과 문학 능력의 신장에도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설문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고전시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단하였다. Ⅲ장에서는 고전시가를 지도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Ⅱ장에서 진단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고전시가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내용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인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 <관동별곡>의 구체적인 수업활동들을 제시해보았다.

2. 연구사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궁극적 목표가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에 있기 때문에 문학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활동을 주안점에 두고 창의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본 연구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여 학습자를 주체로 한 다양한 고전시가 감상 경험을 확대해 보고자 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학습자를 주체로 한 수용미학 관련 연구와 고전시가 교수법에 관한 연구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습자를 주체로 한 수용미학 이론에 관한 연구들 중, 박태호[2]는 반응중심의 접근법은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에 초점을 두므로 텍스트 중심·교사 중심의 편협한 문학수업으로부터 독자를 회복시켜, 학생 중심의 문학교육을 지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문학작품의 감상능력은 작품세계를 탐구하는 반응의 과정 속에서 능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반응중심 문학교육은 학습자의 문학경험을 우선하며 반응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문학수업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위축되고 왜곡된 문학교육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류덕제[3]는 독자 중심의 문학이론인 수용 이론과 인지 심리학의 학습 이론 가운데 스키마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을 주장했다. 그리고 문학의 이해와 감상은 다양성이 본질이라 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다양성이란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객관적 합당성이 전제되는 것이 되어야한다고 하며 문학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이 자의적으로 일탈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권오경[4]은 읽혀지지 않는 문학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고전문학 텍스트의 경우 교육적 자료로 안내되지 않으면 일반인의 독서물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고, 고전시가의 교육적 측면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다. 그리고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서는 텍스트와 학습자의 역동적 작용을 통한 체험적-창조적 패러다임이 효과적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이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수용이론을 적용했는데, 수용이론을 통한 고전시가 교육은 상상력과 창조력, 종합적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라 했다. 안미향[5]은 교사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활동을 통하여 흥미와 텍스트를 향유하기 위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수용 미학 이론을 적용한 고전시가 지도모형을 구안해냈는데,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 <관동별곡>의 수용 미학적 지도모형을 제시했다. 이상구[6]는 학교 교육 체계가 지식 교육에서 사고력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문학 교육 역시 기존의 지식 교육 체제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2) 박태호,「반응중심 문학 감상 전략과 교수학습방법」,『청람어문학』제13집, 1995.

3) 류덕제,「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연구」,『문학과 언어』, 문학과언어연구회, 1995.

4) 권오경,「고전시가문학 텍스트의 교육 패러다임 모색」,『어문논총』, 경북어문학회, 1998.

5) 안미향,「고등학교 고전시가 교육의 수용미학적 접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4.

6) 이상구,「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문학 교육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용미학 이론을 포함한 독자 반응 이론 및 구성주의 문예학이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의 바탕 이론으로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능동적인 독자에게로의 관점 이동을 하는 것이며, 학습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비판적 수용 자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활동을 하는 학습자의 기존 지식에 의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변형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또한 개인의 능동적인 조직 과정을 통해 주어진 정보를 뛰어 넘어 새로운 의미를 산출해 내는 것만이 전인교육과 정의적 영역에 의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고, 학습자들을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흐름인, 고전시가 교수법에 관한 연구들은 고전시가 작품들을 교육과정과 연관 지어 살펴보고, 학습지도안이나 다양한 교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경옥[7]은 고전시가 텍스트의 교육적 자료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전시가 교육의 방향과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고등 국어 교과서 소재 고전시가 작품의 제재와 학습목표 및 학습활동을 분석했다. 또한, 학습목표와 학습활동 사이의 연계성을 살피고, 학습활동문제가 학습목표 구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치밀하게 분석해서, 교과서에 충실한 수업지도안과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김시용[8]은 고려가요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수업 과정에서 추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적 논의를 거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방법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했다. 고려가요의 지도 내용으로 정서 체험과 내면화의 방법을 들고 인지적 요소의 지도 단계와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가시리>, <청산별곡>, <동동>, <서경별곡>의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했다. 박대일[9]은 학습자들이 고전시가의 장르를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얻은 정서와 가치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고전문학 교육의 당면 문제를 살펴보고, 고전시가 교육

---

7) 김경옥,「고전시가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연구 - 제7차 국어(상·하) 시가 소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김시용,「고등학교 문학교과의 고려가요 교수-학습 모형 연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3.

9) 박대일,「고전시가 학습지도방안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해 본 후, 교과서에 실린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관동별곡>의 갈래인 속요, 시조, 가사의 주된 특징에 대해 살폈다. 그리고 그 장르적 특징을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지도 방안을 모둠 수업과 과제 제시를 통해서 다루었다. 송교선[10]은 고전시가 작품을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도구로 보는 대신 작품 자체를 이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며,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관동별곡>이 수록된 교과서 단원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교사용 지도서에 실린 지도방법과 내용을 살폈다. 또한 이들 작품이 문학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같은 방법으로 살핀 후, 고전시가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했다. 양미옥[11]은 고전시가 교육의 방향을 문학 교육으로서 접근해야만 고전문학 교육이 현재의 삶에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문학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전문학 수업의 모형을 제시하고 기대되는 성과를 전통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형성과 문학 능력의 신장에 두었다. 이민정[12]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법과 내용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전시가의 학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교수-학습과정에서 나타난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집단 집중지도・개별학습 병행수업 모형을 제안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고전시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고전시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들을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자 중심의 수용 미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부분 이론적 차원에 머물며 실제 수업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 방법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수업지도안을 제시해 보고자 했던 경우에도 정해진 수업시간에 모두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많은 자료를 한 차시에 제시하는 등 현실성이 부족했다. 이론에 의존하는 대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서를 분석해

---

10) 송교선,「고등학교 고전시가 교육 연구 - <청산별곡>,<어부사시사>,<관동별곡>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5.

11) 양미옥,「고전시가 교육방법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2) 이민정,「고전시가의 학습실태와 지도방안 -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5.

보기도 하고, 교과서에 실린 고전시가 작품들을 분석해 학습자들의 흥미를 고려한 수업지도방안을 제시하는 흐름의 연구 역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면모를 벗어나지 못해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에 본 논문은 이론에 의존하기 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해 낸 뒤,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작품인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관동별곡>을 공부함에 있어 학습자들이 할 수 있을만한 활동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고전시가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것인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Ⅱ.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고전시가 수업을 보다 흥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고전시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광주광역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두 곳(조선대학교 부속 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 부속 여자고등학교)을 임의로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1학년 학생 140명(남 70명, 여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응답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 설문문항은 고전시가에 대한 선호도, 고전시가를 학습함에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 고전시가 수업에서 인식되는 문제점,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방식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본 집단의 인원수가 많지 않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고민을 했으나, 대학 진학이라는 공통된 목표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체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분석은 문항별 선택 정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대비하는 방식을 취했다. 변별도가 불분명한 항목에 대해서는 결과 차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해석하는 것은 피했다.

그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전시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전시가 교육에서의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다.

1. 설문을 통해 본 고전시가 교육의 현황

첫 번째 문항은 국어과목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 하나만 선택하게 할 경우 국어과목도 어느 정도 좋아하긴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선택하게 했다. 1순위와 2순위를 따로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항의 목적이 좋아하는 과목의 순위별 통계를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과목에 어느 정도의 흥미가 있는지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항 *1*>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 좋아하는 과목은? (***1*순위와 *2*순위를 괄호 안에 숫자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	응답 수(명)		비율(%)	
	남	녀	남	녀
국어	28	41	20	29
영어	16	22	11	16
수학	32	27	23	19
사회	26	19	19	14
과학	10	17	7	12
기타	28	14	20	10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 아직 문과와 이과로 나뉘지 않은 상태여서인지 좋아하는 과목 선호도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생각보다 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다.

<문항 *2*> 국어 교과 영역 중 가장 관심 있는 것은? (***1*순위와 *2*순위를 괄호 안에 숫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	응답 수(명)		비율(%)	
	남	녀	남	녀
현대산문	40	51	29	36
현대운문	14	17	10	12
고전산문	26	15	19	11
고전시가	6	6	4	4
문법	12	4	8	3
기타(수필,희곡 등)	42	47	30	34

고전시가에 대한 흥미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기타(수필, 희곡 등)를 제외하고는 현대산문과 현대운문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남학생들은 현대운문보다는 오히려 고전산문에 더 흥미를 보이고 있었다. 함축된 언어로

표현되는 시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운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이 느껴졌는데, 현대운문을 선호하는 학생과 고전산문을 선호하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12%, 11%로 거의 비슷해서 고전과 운문에 대한 부담이 있음이 보여졌다.

고전시가에 가장 관심없어하리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남학생의 경우 문법보다 더 관심이 없어하는 결과는 놀라웠다. 고전시가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동기유발이 잘 되는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재미없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고전시가 수업에 임할 학생들을 위해 학습 도입 단계에서의 동기와 흥미유발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문항 3> 국어시간에 고전시가를 배우는 것에 대한 솔직한 생각은? (**하나만 선택** 해주십시오.)

설문내용	응답 수(명)		비율(%)	
	남	녀	남	녀
재미있고,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7	10	10	14
재미는 있지만, 왜 배워야하는지는 모르겠다.	8	17	11	24
재미는 없지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9	34	42	49
지루하고 어렵다. 흥미도 없다. 왜 배워야하는지 모르겠다.	26	9	37	13

고전시가가 재미있고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한 학생은 각각 10%와 14%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전시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고전시가를 배워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배우려는 대상에 대해 관심도 있고, 왜 배워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때의 학습이 가장 효과적인데,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들의 이런 생각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수업참여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수업을 할 때, 학습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학습목표를 확실히 인지시킨 후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앞 문항의 결과에 이어, 수업 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전략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문항 *4*>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고전시가 작품 중 흥미 있는 것은? (***1*순위와 *2*순위를 괄호 안에 숫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	응답 수(명)		비율(%)	
	남	녀	남	녀
하여가	14	5	10	4
단심가	14	17	10	12
청산별곡	44	55	31	39
어부사시사	42	41	30	29
사모곡	8	10	6	7
관동별곡	8	5	6	4
시집살이노래	6	7	4	5

<문항 *5*> *4*번 문항에서 그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6~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를 꼽았다. 제시한 7작품은 모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인데, 수업시간 중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두 작품에 응답이 몰린 것을 보며 5번 문항의 학생들의 답변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4번 문항에서 작품을 선택한 이유로 '수업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친숙해서'라고 대답했다. 그 뒤를 따르는 응답으로는 '학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서', '언젠가 배운 것 같아서', '제목이 낯이 익어서' 등이 있었다. 순수하게 그냥 제목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는 대여섯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라 학교나 그 밖의 장소에서도 전혀 배우지 않았던 고전시가 작품에 학생들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국어교과서에서 고전시가 작품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항 *6*> 지금까지 받아온 고전시가의 수업방식은*?*

설문내용	응답 수(명)		비율(%)	
	남	녀	남	녀
강의 중심의 수업으로 작품 해석에 치중했다.	50	54	71	77
작품 감상 중심의 수업을 받았다.	16	13	23	19
문답 중심의 수업을 받았다.	4	1	6	1
조별 활동이나 토의 중심의 수업을 받았다.	·	·	·	·
파워포인트나 그림 등 자료 활용 중심의 수업을 받았다.	·	2	·	3

강의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문학교육이 얼마나 한 쪽으로 치우쳐져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이론적 지식을 전달해야한다는 데 급급하여, 수업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흥미나 참여도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시수 안에 교과내용을 비롯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욕심이 수업을 교사 중심의 강의식으로 치우치게 한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경직된 수업방식은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적절한 문답이나 자료 활용 및 소집단 활동과 토의 수업 모형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항 *7*> 고전시가 작품의 수업을 들을 때나,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순위와 *2*순위를 괄호 안에 숫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	응답 수(명)		비율(%)	
	남	녀	남	녀
작품 해석	44	54	31	39
작품 감상	26	26	19	19
장르에 대한 이해 - 향가, 고려 가요, 시조 등	16	14	11	10

작품에 쓰인 표현법	18	18	13	13
문학사적 의의	12	5	9	4
작가 및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24	23	17	17

비교적 고른 분포의 응답을 보여서, 고전시가 수업에서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외로 시험문제에 주로 출제되곤 하는 '문학사적 의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선택한 학생들이 드물었다.

학생들은 그 동안 작품 해석 중심의 강의식 교수 학습에 길들여져서인지 고전시가를 배움에 있어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감상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일 뿐인데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웠다.

이 외에 '작품 감상'과 '작가 및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문항 *8*> 고전시가 수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설문내용	응답 수(명)		비율(%)	
	남	녀	남	녀
고어 및 한문표기로 인해 해석이 어렵다.	46	41	66	59
현재와 작품 속 배경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공감이 안 된다.	·	1	·	1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혼란스럽다.	11	2	16	3
현재와 다른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표현법도 다르다.	7	11	10	16
막연히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에 거부감부터 든다.	6	15	8	21

앞서 조사한 <문항 2>와 <문항 3>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고전시가를 국어의 다른 영역에 비해 어렵게 느끼고 있었고, 흥미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문항 8>은 학생들이 고전시가를 멀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결과 분석에 앞서, 고전시가는 현재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창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날과의 가치관이나 정서의 차이로 학습자들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곤란함을 느껴 고전시가를 어렵다고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와 작품 속 배경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공감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고전시가를 어렵게 여긴다고 응답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 대신 무려 66%와 59%의 학생이 고전시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로 '고어나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13]'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여학생의 경우는 '막연히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에 거부감부터 든다'는 응답을, 남학생의 경우는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 때문에 혼란스러워서'를 선택했다. 작품 해석이 고전시가 수업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작품 감상에 앞서 학습자들이 작품의 해석을 할 수 있게 교사가 도움을 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고전시가 작품을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문항 9> 고전시가를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싶습니까?

설문내용	응답 수(명)		비율(%)	
	남	녀	남	녀
강의식	16	15	23	21
문답식- 교과 선생님과의 질문과 대답	6	9	8	13
활동중심(조별학습, 토의를 통해 해석해보기 등)의 수업	18	19	26	27

13) 학생들이 고전문학 작품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바로 '작품이 고어나 한문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어로 해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고전문학 작품을 실을 때, 원전 그대로 표기할 것이냐, 현대어로 적절히 바꾸어 표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인희가 이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시가 작품은 모두 10편으로 원전의 표기를 따르고 있는 것은 <청산별곡>을 포함하여 모두 4편이다. (민요 두 편의 경우는 구전되다가 현대에 와서 채록되었기 때문에 표기를 현대어로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시조인데 시조의 경우는 한글이 창제된 후 기록되었거나 창작되었기 때문에 고어 표기를 충실히 따를 수 있음에도 고어 표기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 박인희,「고전문학 교육과 표기법 -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고전시가를 중심으로」,『새국어교육』,통권 6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이런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고전의 멋과 예스러움을 살리기 위해 원전표기를 따를 것이냐, 학습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대어로 표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많은 자료를 활용(파워포인트, 그림, 영상 등)한 수업	30	27	43	39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학생들은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면 어렵고 지루했던 고전시가수업도 재미있게 느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활동중심으로 조별학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강의식 수업'을 하는 것을 원하는 학생들도 23%, 21%를 차지했다.

<문항 *10*> 고전시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내용	응답 수(명)		비율(%)	
	남	녀	남	녀
참고서와 교과서를 정독하며 암기와 병행한 학습	4	2	6	3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작품 해석을 통한 이해 중심의 학습	32	38	46	54
친구들과 토의를 통해 이해하고 감상하는 학습	14	9	20	13
인터넷 자료나 영상, 노래 등을 찾아보며 감상 중심의 학습	20	21	28	30

고전시가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석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있어서인지 많은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해석을 하며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고전시가를 학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항 9>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은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임에 반해, 가장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선생님과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꼽은 학생들이 많아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문항 *11*> 고전시가가 시험범위로 포함되었을 때의 느낌은*?*

설문내용	응답 수(명)	비율 (%)

	남	녀	남	녀
부담스럽다.	53	46	76	66
부담스럽지 않다.	17	24	24	34

<문항 *12*> *11*번 문항에서 '부담스럽지 않다'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전시가 작품이 시험범위에 포함되면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석을 하지 못할 경우 아예 문제를 풀 수 없거나, 올바른 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고전문학이 암기의 대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고전은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서, 차라리 고전 문제가 쉽다' 등의 대답이 많았다. 고전시가 영역의 시험문제가 작품을 감상하고 적용하기는 문제보다는 암기한 것을 단순히 재생하는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고전시가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학은 작품과 감상자 사이에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나 작품을 분석하는 차원으로 행해지는 수업으로는 문학작품과 학습자 사이에 활발한 상호교류가 진행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시가 교육은 교사 중심으로 해석과 지식 전달위주의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고전시가 작품의 경우 감상을 위해 해석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수업의 주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전시가 교육에서의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았다.

가. 해석 중심의 수업

학교 현장에서의 고전시가교육은 여전히 자구 해석 중심의 교수 학습적 틀에 머물고 있다.(문항 6) 물론, 해석은 고전시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업 비중에

서 최소한의 것이 되어야 한다. 현대어로 해석하는 것 자체는 작품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느끼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해석에 치중하는 수업을 들으면, 삶의 정수로서의 문학을 또 하나의 암기과목으로 느끼고 부담을 가진다. 특히, 시어나 시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는데 집착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교사가 수업시간에 일러주는 몇 가지의 해석본대로 정확히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으로 고전시가를 더욱 멀게 느끼게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고전시가에 대한 흥미를 잃는 첫걸음이다.

게다가 해석 중심 수업을 하면 작품을 해석하는 것을 고전시가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문항 7), 해석이 잘 되면 해당 작품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다른 학습 요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우려가 있다. 고전시가를 해석하는 교수-학습 방법만이 고전시가를 배우는 최선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 학습자들은 고전시가가 어려운 장르라고 속단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교사의 해석에 의존하고 학습자 자신이 능동적으로 작품을 탐구해보고 감상하려는 의지를 꺾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를 보며 친구들과 조별학습을 하거나 토의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찾는 수업을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문항 9) 그런 수업이 고전시가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지는 않다고 여기는(문항 10) 것은 그동안 수업이 해석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는 교사의 도움이나 참고서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학습자의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학습은 문학교육에서는 의미가 없다.

나. 교사 중심의 수업

고전시가 수업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해당 작품 자체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소개할 거리가 너무 많다. 고전문학은 현대문학과는 장르나 형식면에서도 다르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김홍규의 연구내용을 살피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자. 김홍규

는 문학작품의 수용에 관여하는 지적이고 정서적 활동의 층위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ㄱ. 텍스트에 관한 서지적 이해, 판단
ㄴ. 텍스트 언어의 해독
ㄷ. 장르적 장치, 특성의 이해
ㄹ. 작품과 관련된 사회적이고 문화적 요인, 환경 및 작가에 관한 이해
ㅁ. 작품에 대한 느낌, 심미적 반응의 형성
ㅂ. 작품 해석
ㅅ. 작품에 대한 소감, 평가[14]

현대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대부분 ㄱ에서 ㄹ까지의 과정들은 생략되거나, 학습자에게 자신이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의식조차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의미시나 난해한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읽을 때에도 이 런 부분은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오며, 대체로 간략하게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고전문학 작품을 접할 때는 ㄱ, ㄴ[15]의 단계는 물론이거니와 ㄷ, ㄹ의 단계도 교사나 참고서 등 외부의 적절한 도움 없이는 손쉽게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정작 문학의 이해 및 감상의 핵심이라 할 ㅁ, ㅂ, ㅅ의 과정으로 진입하기도 전에 이 네 가지 단계에 가로막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작품을 느끼고 해석하며 제 나름으로 소화하는 수용 과정에서도 ㄷ, ㄹ의 요소들은 결코 간과해도 될 만한 사항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문학의 경우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작품을 읽고 공감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현대문학에 비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인지적 요소들이 작품 자체를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하게 지도되어지는 것은 문제이다. 이는 문학교육의 본래적 목적인 감상을 간과하는 것이다. 게다가, 수업시간에 고전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장르와 형식, 작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나면 교과서에 들어있는 고전시가 작품은 어느새 그 장르의 일

14) 김흥규,「고전 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와 원근법」,『현대 비평과 이론』3호, 한신문화사, 1992, p.44.

15) 고전문학의 특성상 언어 텍스트의 해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고전 시가 작품에 대한 지나친 어석 위주의 교육은 피해야겠으나, 어느 정도 수준의 어석은 작품 감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본적인 어석을 소홀히 하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적인 예가 되고 만다. 교사나 학습자 모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장르적 특징에 비추어 작품을 분석하게 되고, 작가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게 되어 고전시가 작품을 하나의 분석해야 할 대상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받아들이고, 공감을 하며 작품에 대한 개성적인 반응을 하는 대신, 이런저런 특징을 정리하고 외우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특징별로 정리된 지식들은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관련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남아, 의미있게 재구성되지 못한다. 단순히 받아들이고 외우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작품을 스스로 감상하고자하는 열의를 잃고, 수동적으로 머무르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국어시간에 고전시가 교육에 배정된 수업 시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교사 중심의 수업을 조장한다. 고전문학은 현대문학보다 장르도 다양하고, 더 오랜 기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수는 현대문학과 비교할 때 오히려 적다[16]. 특히, 고전시가의 경우는 소단원으로 단 세 작품만이 수

16) 뿐만 아니라 6차 교육과정에 비해 7차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고전시가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교과서	6차 국어 대단원	소단원	갈래	7차 국어 대단원	소단원	갈래
국어 (상)	2. 문학의 즐거움	청산별곡	고려가요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하여가 단심가 (보충학습수록)	시조
	5. 문학의 유형	고시조	시조	6. 노래의 아름다움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고려가요 시조
	7. 작자, 작품, 독자	관동별곡 안민가	가사 향가	·	·	·
국어 (하)	3. 언어와 문학	용비어천가	악장	4. 효과적인 표현	사모곡 (심화학습수록)	고려가요
	6. 문학과 문화	유산가 연행가	잡가 가사	5. 감동을 주는 언어	관동별곡 시집살이노래 (보충학습수록)	가사 민요

『국어(상, 하)』에 실려 있는 문학 영역 단원 중 6차 교과서는 시 7, 소설7, 수필 1, 개인 소단원으로 구성된 현대문학이 15단원이며, 고전문학이 15단원이다. 이 중 고전시가인 향가 1, 고려가요 1, 악장 1, 시조 1, 가사 2, 잡가 1이며 고전문학의 다른 갈래인 언해 1, 한시 1, 고전소설 3, 수필 1, 판소리 1, 민속극 1단원으로 구성되었다. 그에 비해 7차 국어 교과서는 문학영역에 해당하는 소단원 수는 22개로 양적감소를 보이고 있고, 이 중 고전문학은 10개 단원, 현대문학은 12개 단원으로 특히 고전시가의 경우 보충·심화 학습에 배당된 것을 제외할 경우, 고려가요(청산별곡), 시조(어부사시사), 가사(관동별곡) 3작품에 불과하다.

보충·심화 학습의 경우는 단원 마무리의 점검하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취수준이 낮다고 판단한 학습자는 보충학습을 선택하고, 성취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심화학습을 선택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학습자가 접하기 어려울뿐더러, 교육과정의 특성상 실제 수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고전시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 김경옥, 앞의 논문, pp.13-14.

록 되어있다. 수업 시수의 부족은 교사들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작품 설명 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도 함께 해주어야한다는 부담을 지워줄 우려가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 주어야한다는 욕심으로 수업을 딱딱하고 전달위주로 흐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강의 중심으로 지루한 수업을 하고 싶어하는 교사는 없다. 하지만 수업 시수는 정해져있는데, 학습자 활동 중심으로 역동적인 수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앞서 조사한 설문문항 중 학습자들은 배웠기 때문에 친숙해진 작품에 대해, 전혀 접해보지 못한 작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었다.(문항 4, 문항 5) 학생들이 가장 흥미있어 했던 장르인 현대산문(문항 1)의 경우는 학교 수업에서는 최소한 것만 가르쳐도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을 가능성이 있다. 소설의 경우에는 늘 서점에서의 판매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하곤 한다. 가끔 시집이나 고전소설을 재해석한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고전시가 계열의 서적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만약, 교과서에서라도 학습자들이 고전시가 작품들을 많이 접하고 그 작품이나 형식 등에 익숙해지게 되면 고전시가도 조금 더 좋아하고,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다. 지식 위주의 평가

문학작품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지식적 내용을 암기하게 하고, 그것을 재생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문항들의 출제 및 채점방식은 그 동안 학교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왔다. 입시라는 틀 속에서 문학에서마저 객관적 지식화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험에 나올만한 요소만 알고 있으면(문항 12), 굳이 '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감상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고전시가는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있고, 외우기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인식을 가지는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한 열의를 보이지 않게 되고, 이 같은 현상은 결국 고전시가교육을 문학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Ⅲ. 고전시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고전시가 지도에서 고려할 점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전문학은 어렵고 따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산문보다 운문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그러므로 고전시가 수업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고전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으로 여겨지는 인지적 요소와 작품 자체의 감상으로 인한 즐거움과 감동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지도할 것이지도 난제이다.

문학교육으로서의 고전시가는 어떻게 지도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임기중은 4가지 유의사항을 밝힌 바 있다. 그 4가지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시는 직접 귀로 듣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음악이나, 직접 눈으로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술과는 달리, 말과 글에 의한 이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라는 점이다.
>
> 둘째, 시는 직접 가르치고 직접 배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지도 방법 그 자체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점이다.
>
> 셋째, 시는 이해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둔 교육활동이 아니라, 느낌을 통해서 무한한 상 상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둔 교육활동이라는 점이다.
>
> 넷째, 특히 고전시가는 학습자가 느끼는 과정에서 시대적 간격이 미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 때문에 이해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곧, 학습 자료를 정선해야하고, 원전을 확장해야하고, 낱말과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하고, 전 작품을 하나의 미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17]

이를 염두에 두며 각 유의점에 따른 바람직한 고전시가 교육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시는 말과 글에 의한 이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자극에 쉽게 공감하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시는 추상적인 정서를 이미지(심상)을 통해 형상화 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가 보다 쉽게 공감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심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감각

17) 임기중,「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교육문제연구』제3권, 동국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85, p.53.

적인 것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해본다면, 고전시가를 가르칠 때, 회화성을 느껴지는 부분은 그림으로 표현해 보게 하고, 음악성이 느껴지는 부분은 리듬을 살려 읽어보게 하거나, 노래로 만들어 불러보게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런 활동을 학습자들이 직접 해보는 동안, 추상적이고 함축적으로 쓰여 어렵게만 느껴지던 고전시가를 해볼 만 한 것,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시는 직접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 방법 그 자체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했다. 모든 문학작품의 경우가 그렇지만, 특히 시라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느끼고 공감해야만 감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상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식적인 것을 설명하고 장르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은 학습자에게 작품을 '그 장르의 특성을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만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보게 해야 한다. 작품 안의 정서에 공감하고 감상해 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로 하여금, 시적 화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상상해보게 하고, 그 화자의 입장에서 일기를 써보게 하거나, 현재 자신의 입장에서 작품 속 화자에게 편지를 써 보는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화자의 정서에 공감하게 될 것이고, 내면화된 정서를 바탕으로 올바른 감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셋째, 시는 이해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둔 교육활동이 아니라, 느낌을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둔 교육활동이라고 했다. 수업시간에 고전시가 작품을 가르치는 것은 고전문학의 장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옛 문헌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고전시가 교육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현재와는 다른 시대의 상황과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며, 그 당시의 정서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을 통해 오늘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보고자 함이다. 물론 앞서 살핀 바 있듯이, 고전시가 작품 감상에는 시대적 배경 설명이나, 현대어 해석, 장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해 활동들이 수업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작품 속 화자가 되어 살아간다고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신문기자가 작품 속 화자가 된 자신을 인터뷰를 하는 형식을 빌어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 이유가 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추구해 나갈 것인지, 왜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해보게끔 하는 것은 상상력을 자극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화자의 정서를 내면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학습자가 고전시가를 감상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네 번째 유의사상은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할 문제이며,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고전시가를 감상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에는 낯선 언어체계와 표현대상 자체의 변화, 사고방식의 차이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요소들을 아예 무시해도 감상에 지장이 생기고, 이런 요소들을 전달하는 과정에 치우쳐지면 학습자들이 고전시가를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학작품이 그러하듯이 고전시가를 읽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즐거움을 찾는 데 있을 것인데, 그러기위해 이런 지식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딜레마다. 흔히 지식에 대한 학습과 즐거움은 상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업을 함에 있어 이런 요소들은 전달할 때는 매체를 활용하여 시청각을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받아들이는 학습자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 고전시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동안 고전시가 교육은 수학시간에 정해진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듯 천편일률적으로 내용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과중한 지식의 부담을 느끼게 해왔다. 이는 실제 수업 시 학습자의 역할을 위축되게 만들었다.

앞서 살펴본 고전시가교육의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며, 앞으로 바람직한 고전시가 교육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고전시가 교육은 학습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하는 수업이 되어야하고, 학습자들의 학습 욕구를 유발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품 감상 중심의 수업과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학습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방식의 다양화로 학습자들이 고전시가를 암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기존의 지식 위주의 평가방식을 개선해야한다.

가. 작품 감상 중심의 수업

고전문학은 오늘날로부터 역사적·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진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고증과 지식 위주의 방법에 치우쳐지기 쉽다. 그래서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이해 감상되어지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

하지만, 고전시가 교육은 작품에 쓰인 표기법의 특이사항, 현대어로의 해석 등 언어활동 자체에 주목하기 보다는 그 언어활동 속에 담겨 있는 화자의 가치관 혹은 세계관, 정서 등에 주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고전시가는 시대마다 특수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전해지지만, 그 본질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승되어 왔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온 고전시가의 가치는 오늘의 삶의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서적 측면에 있다[18].

고전시가는 현대시와 비록 표현형식은 다르지만 시적 화자의 정서를 노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며 고전작품이 향유되던 당대의 삶과 정서가 현대 우리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줄 지도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수업 지도방안을 고안할 때 내면화 단계를 고려하는 것은 학습자와 작품 속 화자와의 가치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즉, 고전문학 교육은 작품에 담긴 내용이나 구성요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나타나게 된 정서, 화자는 왜 이런 심정을 노래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습자가 작품 속 화자가 본인이 처했던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그런 정서를 노래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문학교육의 목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도 가능할 것이다. 작품을 해체하고 분석하는 것은 총체적인 이해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고전은 옛 선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전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고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늘날의 삶의 더욱 풍요롭게 하고 가치관을 넓혀가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고전시가는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할 수 있는 문학 작품임을 느낄 수 있도록 감상위주의

18) 고어로 표기된 문헌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언어학적 연구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전시가를 배움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옛 선인들의 정서를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학습자들이 세상을 보다 넓게 보고, 삶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데 있다.

지도를 해야 한다.

작품의 특성상 다양한 해석상의 이론들을 소개해야 할 때도 이를 염두에 두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작품의 면면에 흐르는 주된 정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해석을 주입식으로 암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나. 학습자 중심의 수업

교사가 수업을 주도하는 대신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강의식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자들이 작품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수업상황에서 학습자들은 능동적으로 사고를 펼쳐가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게다가 일방적인 강의위주의 주입식 수업 전개로는 작품을 통한 상상력 신장이나 심미적 정서 함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학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놓이는 것은 작품을 분석·비평하면서 그것을 자기화하는 일련의 감상활동이다. 그리고 이를 충실히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다. 문학교육은 '학습자를 문학적 체험에 참여시킴으로써 학습자의 체험을 확장시키고,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19]고 했다. 학습자들이 공감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에서 시작하여 학습자들과 작품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학은 작가, 작품, 독자와 작품 속에 반영된 세계 사이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와 다른 시대와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지닌다는 경험을 통해서 삶의 폭과 깊이를 체험할 수 있다. 고전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완성된다.

고전시가 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20]중심의 수업으로 생생한

---

19) 정구향,「문학교육의 방안」,『국어교육개발』제1호(통권 34호), 한국교육개발원, 1986. p.66.

20) 여기서의 '활동'의 의미는 정기철의 논문에서 정의된 바를 따른다.
학습자의 '활동'은 이해와 표현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이해와 감상이 쓰기와 말하기와 같은 표현 활동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읽기를 통해 습득된 지식이나 이미지는 거의 추상적인 관념으로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자아의 발견 및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문학 체험을 통한 느낌을 더욱 긍정적이고 풍부하게 느끼고 이는, 보다 더 심화된 고전시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업상황에서의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문학의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방법론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매체를 단원이나 작품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교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매체를 활용하려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 시간에 매체를 활용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동기 및 흥미를 유발시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 교사는 제시된 자료에 따른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피며, 융통성있게 자료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딱딱한 지식 부분은 매체를 활용해서 전달하면 효과적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수업환경의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앞서 고전시가에 할당된 수업시수의 부족이 고전시가 교육을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시수 부족 문제가 개선될 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의 고전시가 수업 시수는 어떠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7차 국어교과서는 상, 하로 나누어져있고, 상은 여덟 개의 단원, 하는 일곱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단원은 교사용 지도서에 의하면 각각 8차시의 수업이 적절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국어교과서의 소단원에 수록된 고전시가 작품은 단 세 작품인데,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는 국어 (상)의 6단원 노래의 아름다움에 실려 있고, 관동별곡은 국어 (하)의 5단원 감동을 주는 언어에 실려 있다. 교사용 지도서[21]에 따르면, 이 중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는 각각 한 차시의 수업이,

---

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해와 감상은 말하기와 쓰기를 수반하였을 때 구체적인 앎이 되거나 일상적인 언어사용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정기철, 「시조 교육의 문제점과 학습자 감상 활동 유형 -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 <오우가>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제16호. 2000. p.229.

관동별곡은 2~4차시의 수업이 적절하다고 안내되어있다. 고대가요, 향가, 고려속요, 경기체가, 악장, 시조, 가사, 잡가, 민요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 문학의 한 갈래인 고전시가를 5차시 동안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부담을 지워줄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은 역시 국어 교과서 내에서의 고전시가의 비중을 늘려서 수업 시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당면한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수업시간에 가르쳐야 할 교과내용을 축소함으로써 시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단위시간동안 꼭 가르쳐야할 것만 충분히 가르쳐서 학생들이 고전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습자 스스로의 해석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이 필요하다. 고전시가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을 수업시간 중에 교사와 함께 다 배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선별된 몇몇 작품을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감상하게 하고, 감상한 바를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교사가 함으로써 학습능력의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국어능력의 신장과 응용력 또한 키워줄 수 있을 것이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도 가능해 질 것이다.

다. 평가 방식의 다양화

단순 지식을 묻는 것 위주의 지필고사로 고전시가 교육평가를 계속하는 것은 학생들이 작품의 핵심 내용을 암기하고, 현대어로 매끄럽게 해석할 수만 있으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고전시가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이는 고전시가를 또 하나의 암기과목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답을 작성하도록 하는 수행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

21) 단원 개관,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의 실제는 물론이고, 단원이 운용방안과 지도의 실제에 관한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는 교사용지도서는 교사들의 원활한 교수·학습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교사용 지도서의 집필에는 교과서 집필진은 물론 고등학교 일선에서 국어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도 참여하여 현실적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교사용지도서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간 안배를 결정할 때 참조하는 자료이므로 실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차시를 분석함에 있어 지도서의 차시 구분을 참고하였다.

다. 수행평가는 학생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의미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창의성과 고등사고기능 또한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식이다. 수행평가는 현재 학교에서도 시행되고는 있지만 개개인의 평가점수에 수행평가가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고, 결정적인 비중은 여전히 지필고사가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평정자인 교사의 편견이나 기대, 비일관적인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의 결과물을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나 평정척도 등의 평가보조도구를 이용해서 명확한 채점기준표를 마려해야 할 것이다.

단편적인 영역에서 학기 당 한 두 번 지필고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학생들에게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고전시가 작품을 문학이 아닌 시험을 보는 교과로 여기게 한다. 이는 학생들이 단편적이고 사실적인 지식의 암기를 하게하고, 교사가 전달하는 객관적인 지식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안주하게 한다.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스스로 작품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기억, 이해와 같은 낮은 사고능력이 아닌 창의, 비판 등의 고등사고 능력의 측정이 가능한 평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시간 전의 진단평가와 수업시간 중의 형성평가를 모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이는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학생 스스로 자기자신을 반성해보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는 학생의 노력과 진보, 성취 수준 또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궁극적으로는 학습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을 단위로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집단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별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서로의 감상과 이해정도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고전시가 작품에서도 보편성이 발견되며, 선인들의 생활방식이나 정서가 현재의 삶과 생각이나 가치관과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다. 또, 이런 평가는 인지적인 영역 외에도 정의적인 영역과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Ⅳ. 바람직한 지도방안

고전시가는 우리 조상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장르로, 음악성을 살리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시가를 가르칠 때는 고정된 지식을 암기하게 하는 것 보다는 작품 속 시적 화자의 정서에 공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작품에 형상화된 삶의 모습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에서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한다. 그 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 때 고전시가 작품에 형상화된 삶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화자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 정서에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에서 살펴보았던 점들을 염두에 두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고전시가 작품들인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관동별곡>의 수업시간에 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시해 보았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을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문학적 경험을 하고 이를 내면화 할 수 있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수업활동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수업활동을 제시함에 앞서,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 <관동별곡>이 수록된 단원을 분석하였다. 수업시간에 할 만한 활동을 제시하는 것은 해당 단원의 구성과 학습목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1. 해당 교과서 단원 분석

가. 단원의 개관

(1)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 문학작품의 아름다움은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빚어내는 효과이다. 이 아름다움은 독자에 의해 제대로 파악될 때 그 가치가 있다. 즉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독자 스스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문학의 아름다움은 더욱 선명해진다.[22)]
>
> 시는 언어의 음악성과 형상성, 함축성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아름다움을 실현하는데, 다양한 시 작품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

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목표이다.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가 수록된 6단원 노래의 아름다움[23]은 다섯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문학 작품과 현대 문학 작품을 함께 수록했는데, 고전 시가 작품에 해당하는 <청산별곡>, <어부사시사>와 현대시에 해당하는 <진달래꽃>, <유리창>, <광야>가 그것이다.

이는 고전시가와 현대시는 창작 시대나 표기상의 언어 및 형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화자의 정서를 노래로 표현한 것으로써 공통점을 지니고, 감상 방법에 있어서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 관동별곡

문학은 예술이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아름다움은 여러 범주로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향하는 바와 깨달은 바가 함축되어 있다. 또 문학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 상황에 대해 작가 나름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24]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상황에 적절한 내용을 생성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 목표이다.

22) 교육인적자원부, 『국어(상)』,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p.228.

23)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 단원을 학습함에 있어 문학에 대한 지식 전수에 그치는 일을 삼가고,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한 체험 확대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이 단원은 문학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로 말해보면서,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며 듣는 태도가 듣기 활동에 중요한 것임을 깨닫도록 구성되어 있다.
>
> 문학은 일상 언어를 일정한 질서와 조화 속에 융합시킴으로써 아름다움을 실현한다. 특히 시는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아름다움을 실현하는데, 다양한 시 작품을 통해 이를 궤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 목표이다. 아울러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학의 아름다움을 화제로 삼아 서로 발표하고 이야기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의 듣기 태도가 듣기 능력 향상에 필수적인 태도임을 자각하는 것도 이 단원의 교수·학습이 지향하는 바이다.
>
> 문학 작품을 제재로 한 기존의 교수·학습이 '문학에 대한 교수·학습' 위주였던 것과는 달리 이 단원은 '문학을 통한 언어 활동 능력 향상의 교수·학습'을 지향한다는 점을 교사와 학습자 모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교사용 지도서 국어(상)』, (주)두산, 2004. p.272.

2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p.224.

<관동별곡>이 수록된 5단원 감동을 주는 언어는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사 작품인 <관동별곡>과 비평문인 <간디의 물레>가 수록되어 있다. 미의 범주를 파악하기 위한 제재로 <관동별곡>을 선정했고, 상황에 적절한 내용 생성 능력을 기르기 위한 제재로는 <간디의 물레>를 선정했다.

학생들이 <관동별곡>을 읽으며 문학의 미적 범주를 파악하고 그것이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 <관동별곡> 내용과 관련 있는 겸재 정선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림을 작품과 함께 감상하면서 문학적 표현과 미술적 표현을 비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문학이 예술의 한 갈래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 단원의 학습목표

(1)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작품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이해한다. ·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25]

대단원에서 제시된 학습목표를 보면 이 단원에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구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문학의 입장에서 학습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게다가 소단원의 제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습목표는 학습 목표 중에서 첫째 항목으로 제시된 것 뿐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은 소단원 자체를 너무 중요시한다. 하지만 소단원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일부분일 뿐이다.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소단원은 무의미해진다. 그러므로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소단원을 이용해야지 학습 목표를 간과한 채 소단원을 중심으로 단원을 전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원의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단원을 전개해야한다는 것은 소단원이 고전시가라고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26]

---

25) 교육인적자원부, 『국어(상)』,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p.229.

26) 박인희, 앞의 논문, p.61.

(2) 관동별곡

·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생성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7)

첫 번째 학습목표인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는 것은 문학 작품을 예술로서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문학 작품을 기능이나, 구조, 작품 세계, 작가·작품·독자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학습했는데, 예술로서의 문학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28)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훈고 주석에 치우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게 한 다음 문학적 표현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문학적인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 교수 학습의 실제 - 준비학습

(1)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 다음은 가곡으로 불린 시의 일부이다.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로파라 가고파
어릴 제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27) 교육인적자원부, 『국어(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p.225.

28) 교육인적자원부, 『교사용 지도서 국어(하)』, (주)두산, 2004. p.241.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하략)

1. 이 시를 낭독하거나 노래로 불러 보고, 낭독할 때와 노래할 때의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2. 이 시가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3. 이 시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 읽어 보자. 29)

시의 아름다움을 본격적으로 이해해보는 본시 학습 전에 가곡으로 불리우는 시를 감상해보게 하고 있다. 시와 노래는 현재 서로 별개의 것으로 논의되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공통점은 음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시와 노래 모두 음악성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실현한다는 것을 학습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곡으로 불리우기 때문에 노래인 줄 알았던 것이 원래는 시였다는 예를 보임으로써 시에 대한 친근감을 길러주는 효과도 있다. 흔히 노래는 거부감 없이 듣고, 가사도 별 어려움 없이 외우지만 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를 암송하는 것은 하기 싫은 숙제로 여기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세 개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문항은 시로 표현되었을 때와 노래로 표현할 때의 느낌을 비교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은 시로써 읊으며 자신도 모르게 운율이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노래로 부를 때는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추어 흥얼거리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시와 노래 모두 율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같은 대상을 시로 읊조리고 노래로 불러본 후 그 느낌에 대해, 학생들의 자유스러운 대답을 들어보고 노래를 직접 들려준 후 다시 시로써 낭송하게 해보면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것 같다.

두 번째 문항은 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요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문항인데, 이는 학습목표 달성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본 수업에

29) 교육인적자원부, 『국어(상)』,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pp.230-31.

들어가기에 앞서 자연스럽게 예습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교과서를 보면, 시의 배경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를 읽으며 머릿속으로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은 시의 형상성을 느끼는 좋은 방법이고, 시를 보다 생동감있게 느끼게 한다. 준비학습에서 이렇게 회화적인 측면과 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보여줌으로써 시를 감상함에 있어 자연스럽게 회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시를 읽으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고향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추상적인 정서가 잘 형상화되어 있다는 데서 아름다움을 느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시 속 화자의 정서에 공감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에서 애틋함을 느껴 시를 아름답다 느낄 수도 있다. 어릴 적 살았던 동네, 함께 놀던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리움에 젖어들 수도 있고, 화자의 고향을 상상해보며 화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느껴볼 수도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시를 읽고 난 후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에 공감하고 시적 화자의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이 시의 아름다움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문항은 얼핏보면 단순해보이지만, 관심이 있는 문학작품을 스스로 찾아서 읽어보는 습관을 기르게 되는 첫걸음을 안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시된 '가고파'라는 시를 아름답다 느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서점에서 책을 찾아 다음 부분을 찾아 읽고 즐거움을 느낀 학생은 다른 작품을 대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이해해보려고 할 것이다. 이는 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상해낼 수 있는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관동별곡

· 그림과 시를 보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송인(送人)

정지상(鄭知常)
신 호 열 옮김

비 갠 긴 언덕엔 풀빛이 푸르른데,	雨歇長堤草色多
남포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送君南浦動悲歌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거나,	大洞江水何時盡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을 더하는 것을.	別淚年年添綠波

<김기창, '강호정담(江湖情談)'(1976)>

1. 두 작품의 아름다움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자.
2.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과 연관시켜 두 작품을 표현된 정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자.[30]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다른 예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운보 김기창의 '강호정담'은 회화가 대상을 관찰하고 재구성하여 아름다움과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학습제제이면서 동시에 가치 있는 내용 생성에 대한 학습제재이다. 정지상의 '송인'은 우리 한시(漢詩) 중 이별의 시로서는 가장 뛰어난 시로 평가되고 있어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좋은 제재가 될 수 있다[31].

첫 번째 문항은 미술작품과 문학 작품은 모두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문항이다. 미술, 음악, 문학은 그 구체적 실현방식이 다를 뿐 미를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며, 단지 문학은 언어예술인 만큼 언어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생들에게 두 작품을 감상하고 자유롭게 각자가 느낀 아름다움[32]을 말해보게 하는 것이 좋다. 문제를 해결

30) 교육인적자원부, 『국어(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pp.226-227.

31) 교육인적자원부, 『교사용 지도서 국어(하)』, (주)두산, 2004. p.244.

하며 학습자들은 미술과 문학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 또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항에서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은 마음이 눈을 매개로 다른 사물과 접하기도 하고, 눈을 통해 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뜻이다. 두 작품은 각각 화가의 눈과 시인의 눈으로 본 정경(情景)이기도 하고, 화가의 마음과 시인의 마음이 외부의 경물(景物)에 투사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대단원의 학습 목표 두 가지와 관련이 있다.

교사는 주체로서의 '나'와 객체로서의 '대상' 사이의 관계에서 아름다움이나 주장할 내용이 생성됨을 학습자들이 파악하도록 해야한다. 또 두 작품에 대한 학습자들의 설명도 화가와 시인의 눈과 마음에 입각한 설명 외에 두 작품에 대한 학습자 스스로의 눈과 마음으로 설명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33]

두 작품의 핵심 제재는 모두 자연물인데, '나'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연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대상을 어떤 위치나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수업 중 주체로서의 나(인간)와 객체로서의 자연(대상) 사이의 관계는 인간이 맺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므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도 이것을 기초로 한다는 것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2. 구체적인 수업활동

<청산별곡>은 삶의 고독과 비애, 현실도피와 이상의 동경 등을 고도의 상징과 비유적 표현을 통하여 형상화한 고려속요이다. 이을 가르치는 데에는 서지적 이해 및 텍스트 언어의 해독에서부터 작품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훈고학 내지는 고증주의로부터 벗어나기가 용이치 않고, 게다가 그에 관한 학설들조차 너무 다양하고 때로는 상호충돌까지 한다[34]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교사가

32) 김기창의 그림 '강호정담'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즐기며 정을 나누는 인정의 아름다움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데에 작품의 아름다움이 있다. 정지상의 송인은 내용의 파악보다 이별의 정서와 그 표현에 주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별의 슬픔이 비 갠 뒤 더욱 푸른 풀빛에 대조되어 강조되고 있고, 비 온 뒤 싱그러운 봄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더없이 행복할 텐데, 만물이 소생하고 새들도 짝을 이루어 즐기는 봄날에 작품 속 주인공은 눈물의 이별을 해야 하니 더욱 비극적이라는 정서에 주목하게 해야한다. 또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 까닭이 이별의 눈물이 강물에 더해져서 그러하다는 시상의 전개도 묘미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도 있다.

33) 교육인적자원부, 『교사용 지도서 국어(하)』, (주)두산, 2004. pp.245-246.

34) 청산별곡은 語釋硏究를 비롯하여 작품 형태, 주인공, 작자, 내용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작

조리있게 감당해 내기란 매우 난감한 형편이다.[35]

<어부사시사>는 작가인 고산 윤선도가 전라남도 보길도의 부용동(芙蓉洞)에 은거하면서 지은 노래로 춘하추동 사계절을 각각 10수씩 읊은, 총 40수의 연장체 시조이지만 교과서에는 계절별로 한 수씩 총 4수만(춘사(春詞) 4, 하사(夏詞) 2, 추사(秋詞) 1, 동사(冬詞) 4) 실려있다. 학생들에게 작품 전체를 소개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수업 중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장(章)들의 기본적인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이 시조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관동별곡>은 조선시대 가사 문학의 일인자로 손꼽히는 송강 정철의 대표작으로 정철이 45세 되던 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내·외·해금강과 관동팔경을 유람한 후, 그 여정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고사(故事), 풍속 등을 읊은 서정적인 기행가사이다. 고전 표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작품에 쓰인 고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며, 지은이인 정철의 사상이나 당시의 시대 배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읽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겠지만, 작가의 전기적 사실보다는 작품 전편에 흐르는 심리적 정서에 주목하고 표현의 묘미와 함축적 의미의 이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해야한다.

그럼, 이런 점들과 앞서 살펴본 단원의 구성 및 학습목표를 염두에 두며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 <관동별곡>을 가르칠 때 수업시간에 할 수 있을만한 활동들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활동은 학습자들이 주관적인 경험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해결해가는 것으로 구성하였다[36].

가 계층에 대해서 신분을 감춘 귀족 계급,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 혁명에 가담했던 반란민들, 궁중에 잡혀 온 관기나 관비, 고려 남성의 하루 일과를 그린 노래, 몽고 침입으로 산성과 해도로 피신한 피난민들로 보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이 노래의 주체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각기 상이한 견해를 보이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대체로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현실도피나 체념의 노래라는 견해이며, 둘째는 첫째와 상반되는 경우로, 적극적인 현실 참여의 노래로 보는 견해이고, 셋째는 실연의 노래로 보는 견해이며, 넷째는 현실에 대한 저항 또는 현실비판을 노래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 김시용, 앞의 논문, pp.40-41.
하지만 고전시가를 배우는 목적은 결국 시적화자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고, 화자를 어떤 이로 상정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내재된 정서는 유사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5) 정재찬,「<청산별곡>에 대한 시교육적 접근」,『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pp. 259-260.

36) 정기철은 그의 논문에서 시조 교육에서의 '학습자의 경험과 생각 표현을 중심으로 한 표현 활동'을 제시했다. 시조는 고전시가에 속하는 한 갈래이고,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이 부분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서의 수업 활동에도 적용해 보았다.
'고전 문학 교육은 명제화된 지식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현재를 살고 있는 학습자와 반응하면서

가. 형상성 관련 활동

시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시를 쓸 때, 시인은 가장 효과적으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해 내려고 하는데, 정서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을 경험적이고 감각적으로 구체화해 낸다. 즉, 이미지(심상)을 활용해서 추상적인 정서를 구체화한 것이 형상성이다. 그러므로 형상성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서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그런 이미지들이 주는 효과 및 드러내는 화자의 정서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활동을 해 볼 필요가 있다.

(1) 그림으로 그려보기

수업을 시작하기 전, 과제 형식으로 작품을 한 번 읽어보고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을 꼽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다. 이런 활동은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 자연스럽게 예습하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고전시가도 현대시와 다를 것 없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또한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만한 장면을 찾는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흥미와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관동팔경의 경치 그림으로 묘사해보거나, <관동별곡>에 묘사된 경치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활동을 통해 이 작품이 형상화가 잘된 작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산별곡>이나 <어부사시사>의 주요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은 작품에서 표현된 시각적 심상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연출해보기 (조별 활동)

작품에 대해 일차적으로 해석이 끝난 후, 수업시간 중에 할 수 있을만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교사는 고전시가 작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전달하지만 학습자는 자신의 선이해 과정을 거쳐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고전 문학 교육은 이러한 객관과 주관 사이를 서로 넘나들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객관과 주관을 넘나들면서 주관은 확장되고 주관의 확장은 곧 객관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학습자는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정제된 객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과 정제된 객관에 상응(相應)하면서 고전 문학을 이해하고 지식 구조화한다. 따라서 고전 문학 교육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학습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고전 문학 교육에서는 고전 문학 작품의 세계와 학습자의 세계가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시조 작품을 읽으면서 학습자의 경험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를 견주고 융합하는 표현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기철, 앞의 논문. pp. 233-34.

다. 작품을 읽으며 떠오른 심상들을 모두 찾아보게 하고, 이를 염두에 두며 해당 작품을 무대에서 연출한다고 가정해보게 한다.

3~4명을 한 조로 짝을 지어주고, 관객들에게 가장 생동감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 및 음향 효과 등을 사용할 것인지 토의하게 한다. (단,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지는 말고, 작품 자체에 충실하게 할 것[37])

- 청산별곡 -

푸른 산 속 외따로 떨어져있는 집 한 채
나무에 머루와 다래를 매달아 놓고 등장인물에게 직접 따서 먹게 함.
우는 새의 소리 삽입/ 해금을 켜는 소리를 삽입
깊은 밤 적막이 흐르는 가운데 텅 빈 방안에 홀로 앉아있는 주인공
무대 앞 쪽에서 술 냄새를 풍김

- 어부사시사 -

어촌의 아름다운 경치를 무대 배경으로 설치
어부가 배에서 한가로이 고기를 낚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봄
맑은 강에 고기가 뛰노는 모습을 형상화시킴
배우에게 백구가 하늘을 나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배 위에서 夏詞를 읊게 함

나. 음악성 관련활동

음악성은 시어가 음악적 자질을 최대한 발현할 때 형성되는 아름다움이다. 시가 다른 장르들과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음악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때로는 암기했던 시 한편을 제대로 암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누구나 노래 한 두 곡 정도는 가사를 보지 않고도 잘 부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옛 사람들은 천자문을 가락에 맞추어 외웠으며, 우리도 어린 시절 구구단을 역시 리듬에 맞추어 외웠다.

고등학교 때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배웠는데, 수업을 시작하

37) 내용을 바꿔보거나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게 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이 활동은 작품 속에서 형상성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작품 자체에 집중하게 한다.

기에 앞서 국어선생님이 안치환이 부른 노래를 들려주셨다. 아직도 거칠거칠하면서도 호소력 있던 그 목소리가 잊혀지질 않는다. 그 어떤 설명보다 시인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그러므로 시의 음악성을 극대화시켜 작품을 배워보는 활동을 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1) 노래 들어보기

<청산별곡>을 배우기에 앞서 동기 및 흥미유발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다. 현재까지 '청산별곡'을 소재로 노래로 부른 가수는 혜은이(1998년 앨범), 노바소닉(2001년 앨범), 이현희(2001년 앨범)이 있다. 노래를 들려주고, 각 노래를 들은 후의 느낌을 발표하게 하여 노래를 비교해보게 한다. 이는 노래도 속도나 가락에 따라 비슷한 가사라도 곡의 느낌에 많은 차이가 나서 전혀 다른 노래처럼 느껴지는 만큼 시도 어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노래를 들으며 '청산별곡'을 접한 학생들은 작품을 어려운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대신 친숙하게 여기며 어떤 내용의 작품인지 궁금해 할 것이다.

(2) 리듬을 살려가며 읽어보기

시의 음악성은 운율을 바탕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운율을 살려 작품을 읽어보면 음악성을 잘 느낄 수 있다. 작품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리듬감이 보다 쉽게 느껴지는데, 리듬을 살려가며 작품을 읽게 하는 활동은 시가 작품의 음악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 수업시간 중에 활용하는 전형적인 수업방식의 하나이다.

<청산별곡>은 3·3·2조를 바탕으로 3음보의 율격을 지닌 작품이고, <어부사시사>는 3·4(4·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음보율을 지닌 작품이며, <관동별곡>은 3·4조의 율격을 지닌다. 이를 염두에 두며 작품을 소리내어 읽어보게 하고, 눈으로 읽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운율을 살려가며 읽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율격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낭독을 통해 학생들은 절로 시적감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노래로 만들어 불러보기 / 후렴구를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 불러보기 (조별활동)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는 길지 않기 때문에 노래로 만들어 불러보게 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다. <관동별곡>같은 경우는 특정부분만 따로 골라내어 노래로

만들어보게 하거나 랩으로 만들어 불러보게 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활동은 고전시가 작품인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 <관동별곡>도 현대시처럼 음악성이 있는 시의 한 갈래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고어로 쓰여진 어려운 작품이라는 부담을 줄여주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어보고 불러보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 줄 수 있다. 또한, 다른 조원들이 발표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노래와 비교해 봄으로써 듣기 태도 또한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렴구는 음악적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는 모두 후렴구를 사용하여 작품의 음악성을 크게 살리고, 작품의 아름다움을 살리는데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38] 이 같은 후렴구는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가락을 붙이느냐에 따라 작품의 전체의 분위기가 좌우되기도 한다. 조별로 후렴구에 가락을 붙여 노래로 만들어보게 하고, 발표를 통해 다양한 버전의 후렴구를 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후렴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함축성 관련활동

일상어는 보통 지시적 의미 또는 사전적 의미를 사용한다. 하지만 시의 경우는 함축적인 의미의 시어를 사용한다. 함축이라는 말은 압축적으로 줄여서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내포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숨기는 것이며 암시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다의성을 가지게 한다. 그렇게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시를 어렵게 느끼게 한다. 그럼에도 작품이 비유, 상징, 역설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일상적, 과학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가치가 표현될 때는, 정서를 환기시키며 시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

38) 청산별곡의 경우는 유려한 리듬감('ㄹ,ㅇ' 음의 반복적 사용으로 매끄러운 음악적 효과와 명랑하고 쾌활한 느낌을 준다)을 가진 후렴구가 사용되어 노래의 흥을 돋우는데,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는 단지 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된 후렴구로 의미적으로는 특별한 뜻이 없다. 어부사시사의 후렴구는 배를 타고 출발해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흥취를 돋구는 역할을 한다. 노 젓는 소리와 노를 저으며 내는 소리를 의성어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는데, 배를 때의고 노를 젓는 과정에서 행동을 지시하는 말을 후렴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 젓는 소리 등의 의성어는 경쾌한 음악성 및 노 젓는 상황의 구체적인 형상성을 높여주는 역할 또한 한다.

(1) 비유적인 표현 찾아보기

비유는 표현하고자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 다른 사물을 끌어다 쓰는 수사적 방법으로, 직유, 은유, 대유, 의인 등의 방법이 있다. 비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관념과 보고 관념 사이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작품 속에서 비유적인 표현된 부분을 찾아보고 그를 모방하여 다른 대상에 같은 표현법을 활용해 표현해 보는 활동은 비유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동별곡 -

·銀은 ᄀᆞ툰 무지게 玉옥 ᄀᆞ툰 龍룡의 초리 :아름답고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의 장관을 묘사한 부분이다. '룡의 초리' '무지게'의 원관념은 폭포(은유법, 직유법. 대구법)이고, '은', '옥'은 순수성, 고결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표현법을 보면서 폭포가 쏟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머릿속에서 그 장관을 떠올려 보면서 매우 실감나고 적합한 표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들을 제ᄂᆞᆫ 우레러니 보니ᄂᆞᆫ 눈이로다 : 폭포 속리를 골 밖에서 들었을 때는 우레가 치는 듯하더니, 직접 와서 보게 되니 흰눈이 쏟아지는 듯하다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모두 사용하여 조화를 이룬 묘사이다. 우레→폭포 소리(청각), 눈→폭포(시각)이며, '눈'은 '은', '옥'과 동질적인 이미지이다. 은유법, 대조법, 대구법이 쓰인 부분이다.

·묽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묽디 마나 : 산 정기의 맑고 깨끗함을 강조한 표현으로 산을 보면서 떠올린 이러한 '백색'의 이미지는 '성스러움, 고결, 승화' 등을 느끼게 하는 함축성을 가진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고결성의 바탕은 작자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음을 뜻한다. 함축은 미묘한 감정의 흐름은 물론 표현의 압축과 의미의 다양화를 지닌다.

(2) 산문으로 써보기

운문으로 쓰인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를 산문으로 써 보게 하고 운문으로 표현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게 한다. <관동별곡>은 비유적 표현이 두드러지는 몇 부분을 발췌하여 산문으로 표현하게 한다. 이 때 작품 속에서 쓰인 상징

적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 등은 모두 일상어로 바꾸어 써보게 하여, 문학작품에서 함축성이 거두는 효과를 알게 하고, 함축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청산별곡>의 경우는 무엇보다 서정적 자아의 태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각 연의 소재와 소재의 함축적 의미, 서정적 자아의 태도를 먼저 파악해 본 후[39] 그를 바탕으로 산문으로 바꾸어보는 활동을 하게 하면 중요한 학습요소를 놓치지 않아 학습효과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어부사시사>의 경우는 학생 개개인이 작가인 윤선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작품 창작 시기를 염두에 두고[40] 현실 정치의 혼탁함으로부터 떠나 강호에서 누리는 넉넉함과 아름다움, 그 속에서의 기쁨과 흥을 제재로 삼아 줄글로 풀어써보게 하면 주제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 해석관련 활동

<청산별곡>은 화자를 누구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부분부분의 해석이 달라지고 주제 또한 바뀐다. 화자의 정서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런 다양한 해석은 학습자들에

39)

연	소재	소재의 함축적 의미	서정적 자아의 태도
1	청산	현실과 대칭된 의미로서의 자연	청산에 대한 동경
2	새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삶의 비애, 고독
3	새	자아의 분신	속세에의 미련
4	밤	절망적인 고독	고독, 괴로움, 정말
5	돌	운명	생에 대한 체념적 절망
6	바다	현실과 대칭된 또 다른 의미로서의 자연	새로운 세계를 동경
7	사슴	삶의 비애를 초극할 기적에 대한 기대	절박함, 기대감
8	강술	현실의 고통을 잠깐이나마 잊게 하는 매개	고뇌의 일시적 해소

40) 고산 윤선도가 처음 보길도에 든 것은 병자호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정축년 그의 나이 51세가 되던 2월이었다. 고산 연보에 의하면 그 후 7차에 걸쳐 들고 나기를 거듭했는데 보길도에 거주한 기간은 13년이나 된다. 고산이 보길도를 은둔처로 삼은 까닭은 세상을 피해 살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보길도의 자연이 수려하여 고산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 딱 맞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윤선도가 살았던 16세기말에서 17세기의 강호시가는 정치적 쟁투에 혐오적인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 김철수 외,『』『두산 고등국어 자습서 (상)』, (주) 두산동아, 2003. pp.404-405.

게 혼란스러움을 주고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끼게 한다. 다양하게 해석되는 이 작품에 보다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활동들[41]을 제시해보았다.

<관동별곡>은 고어와 한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현대어로의 해석을 위해 고어와 한자 풀이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 진도 나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 고전표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겠지만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어려운 고전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학습과제로 수업 전에 미리 <관동별곡>의 현대어 풀이본을 준비해서, 미리 읽어오게 한다. 그리고 작품을 읽으면서는 표현의 아름다움과 화자의 정서에 집중하게 해야한다.

(1) 일기쓰기 - 시적 화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기를 써보게 한다. 일기를 쓰는 과저에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고, 이런 활동을 통해 화자의 정서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2) 편지쓰기 - 독자의 입장에서 화자인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보게 하거나, 자신이 시적 화자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나 친척인 화자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 격려나 위로, 충고, 그리워하는 입장 등으로 자유롭게 편지를 써보게 한다.

(3) 인터뷰하기 - 신문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만들어보고, 예상 답변까지 제시해보게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난 후 한 편의 신문기사를 작성하게 해보는 것도 좋다.

예) 왜 이런 노래를 하게 되셨습니까?
또 다른 곳으로 사는 곳을 옮겨가실 생각이신가요?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

41) 제시될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1. 시적 화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자. (여러 다양한 해석상의 인물 중 하나로 설정)
자신이 시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시적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부터 판단해보자.
2. 시적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을 파악해보자.
3. 이런 상황과 대상에 대해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이는지 정리해보자.

왜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셨나요?

각각의 활동을 각자 해 본 후, 발표 시간을 통해 친구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게 한다. 발표하게 한 후, 현재 그들의 마음상태에 대해 말해보게 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에 집중해보게 한다.

<청산별곡>의 경우는 위의 활동들을 직접해보고, 다른 사람의 발표내용을 들으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 실연한 여인, 무신집권기의 지식인층 등의 다양한 모습의 시적화자가 되어보고 그의 정서에 공감해 보는 활동을 하는 것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서너가지의 해석을 전달해주고, 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다양한 해석상의 혼란스러움을 줄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각의 시적 화자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서만큼은 공통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느끼는 감정들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민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친숙함을 느끼고 고전시가에 대한 거리감 또한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마. 창의성 신장 관련활동

다음과 같이 작품을 재구성해보는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결론 다르게 바꾸어보기 / 개사해보기

<청산별곡>의 시적 화자는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 방황하는 인물로, 비애와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낙천적 인 생관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여 삶의 고뇌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시름을 술로 해결하려는 한계를 보인다. 이런 결론과 달리 자신만의 이상향을 찾아 시름을 잊고 행복을 찾게 되는 결론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어디로 떠나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 등으로 바꾸어 볼 수 도 있겠다.

<관동별곡>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명쾌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며, 활달한 분위기

와 낭만적인 서정이 넘친다. 그리고, 산과 바다에서 필자는 양면성(위정자로서의 모습과 인간 본연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보여지는 작품이다. 화자는 산에서는 위정자로서 연군·우국을 추구하고, 바다에서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신선사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둘은 얼핏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신선류의 풍류가 속세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연군·우국하는 정치 현실은 세속적인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자에게 있어서 신선류의 풍류와 연군은 다 함께 소망스러운 덕목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에서의 신선류의 풍류는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참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선 사상은 현실 정치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다시 정치에 열중할 수 있는 활력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각자 자기자신이 작품 속 화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강원도 관찰사라는 신분에서 가지게 되는 연군의 정과 선정에의 포부와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개인적인 풍류 사이의 심리적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하지만, 친구들과 놀고 싶은 갈등 속에서 매일을 보내는 자신의 모습과 연결지어보며 화자의 갈등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공감하고 결론 부분을 바꿔보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기르고, 화자의 선택에 비판 혹은 공감하면서 고등사고능력 또한 기를 수 있을 것이다.

(2) 인물을 새롭게 창조해 설정해보기

시적 화자를 오늘날의 인물로 바꾸어 볼 수도 있다. 수능 시험을 망치고 고뇌에 빠진 재수생, 번번이 취직에 실패해서 백수로 살아가는 이십 대 후반의 청년,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의 삶, 공부를 하기 싫지만 공부를 해야 하는 나 등으로 바꾸어 보는 활동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내면화하고 문학작품이 오늘날을 삶을 성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3) 다른 장르의 글로 바꿔보기

<어부사시사>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삶의 여유와 보람을 찾고 있다. 보길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생각으로 기행문 써보게 하거나, 어부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바를 일종의 체험기 형식으로 써보게 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다.

<관동별곡>의 경우는 작품 속으로 들어가 작가와 함께 관동팔경을 유람하며 여

행을 한다고 가정하고 여행기를 써보게 하는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주인공의 여정은 크게 부임과 관내 순력, 금강산 유람, 관동팔경 유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몇 개를 골라 날짜도 설정하고, 여행 도중 화자와 대화를 하거나, 함께 보고 느낀 바 또한 삽입하여 여정, 견문, 감상의 형식을 갖춘 글을 써보게 한다. 화자와의 대화를 상상해 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작품에 대하 유익한 의미 구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활동은 맹목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여행에서 발견하는 감동을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학습자 자신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서 문학이 주는 정신적 가치와 즐거움 또한 느낄 수 있다.

(4) 자신의 삶과 비교해보기

작품 속에서 보편적 깨달음을 찾아보고, 이를 자신의 삶에 투영시켜보는 활동이다. <청산별곡>을 읽고 단순히 '이 노래는 고려 시대의 무신 집권,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전란의 피해, 변방 수비를 위한 백성들의 강제 이주 등을 겪은 사람들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군'하고 파악한다면 문학적 감동은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해석을 하는 이유는 문학작품을 보다 잘 감상하기 위한 것이고 작품의 감상은 읽는 이의 삶과 의미적 연관을 맺을 때 깨달음과 감동을 준다.

'인간의 삶은 어쩔 수 없이 갈등과 고뇌를 수반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갈등과 고뇌를 느끼면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세계, 즉 이상향을 갈구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 속에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그와 같은 갈등은 현실 속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통찰은 진로 문제, 성적, 친구 등의 문제들로 고민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이와 같은 갈등과 해소의 과정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과 비애가 절실할수록 그것을 벗어나려는 욕구도 심화된다는 것을 알고,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이러한 욕구가 보편적인 것임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동시에 이러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고전시가는 선인들의 생활 감정과 사상 및 정서를 함축적으로 표출한 장르로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정서를 계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고전시가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오늘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고전시가 지도는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선인들의 삶에 대한 생각, 가치관, 정서를 체험하고 오늘의 삶을 성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본고는 이런 교육적 가치를 지닌 고전시가가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고정적인 모습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학습자로 하여금 고전시가 작품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흥미를 갖게 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학습자들이 고전시가에 대해 어느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고전시가 작품을 공부하길 원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각 설문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교사 중심으로 강의식에 편중된 일방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고전시가 작품의 해석에 치중한 수업으로 학생들은 고전시가가 어렵고 따분한 것으로 고전시가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고, 수업시간에는 주어진 해석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세를 취했다. 평가 또한 대체적으로 지식적인 내용을 재생시키는 형식이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이러한 수업 및 평가 방식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입시 위주의 학교 분위기와 교과서 내에서의 고전시가 작품의 비중이 적어 수업 시수가 부족한 상황이 이런 수업방식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제시된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해보기 위한 방안과 바람직한 고전시가 교육을 위해서는 수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도 참고하였는데, 이는 방향제시가 너무 편협하게 치우쳐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고전시가 교육은 해석 중심의 수업이 아닌 작품 감상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평가 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고전시가 작품을 암기하며 공부하는 대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스스로 작품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 또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전시가 작품을 가르칠 때 실제 수업시간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활동들을 제시해보았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인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 <관동별곡>의 수업 시간 중에 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수업활동을 마련했다. 수업시간에서의 활동 제시의 현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교과서의 단원 구성과 학습목표를 분석해서, 그와 연관되는 활동을 제시했다. 해당 단원들은 문학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요소들을 알아가는 단원들이었기 때문에 형상성과 음악성, 함축성 관련 활동들을 제시했고, 고전 시가 작품은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해석 관련활동 또한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차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있기 때문에 창의성 관련 활동도 제시했다.

바람직한 고전시가 교육은 학습자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작품을 감상하고, 그 작품세계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분히 느껴서 학습자 나름의 감상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해석해주고, 학습자는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암기하는 방식의 수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작품 감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학습자들은 고전시가는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에 따른 거부감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작품 감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적 앎의 즐거움과 문학의 아름다움은 문학 작품을 자기 자신의 삶과 연관시킬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다. 고전시가 수업이 전달-학습 위주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화자의 정서를 내면화해보고, 스스로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역동적인 수업이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교과서 관련 -

김철수 외,『두산 고등국어 자습서 (상)』, (주) 두산동아, 2003.
교육인적자원부,『국어(상)』,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교육인적자원부,『국어(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교육인적자원부,『교사용 지도서 국어(상)』, (주)두산, 2004.
교육인적자원부,『교사용 지도서 국어(하)』, (주)두산, 2004.

- 단행본 및 학술지 자료 -

강명혜,「시조 교육의 현황과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 <시조>를 중심으로」,『시조학논총』 제20집, 시조학회, 2004.
권오경,「고전시가문학 텍스트의 교육 패러다임 모색」,『어문논총』 경북어문학회, 1998.
김대행,『시가 시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김홍규,「고전 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와 원근법」,『현대 비평과 이론』 3호, 한신문화사, 1992.
류덕제,「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연구」,『문학과 언어』, 문학과언어연구회, 1995.
박인희,「고전문학교육과 표기법 -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고전시가를 중심으로」,『새국어교육』 통권 6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박태호,「반응중심 문학 감상 전략과 교수학습방법」,『청람어문학』 제13집, 1995.
신헌재 외,『국어과 협동학습 방안』, 박이정, 2003.
_____,『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 방안』, 박이정, 2001.
이상구,「구성주의 문학 협동학습 방안 탐색」,『독서연구』 제10호, 2003.
이상익,『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이승남, 「고전시가의 문학교육적 접근 - 관동별곡의 심미적 체험을 중심으로」,『동악어문논집』 권 32호, 1997.
임기중,「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교육문제연구』 제3권, 동국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85.
정구향,「문학교육의 방안」,『국어교육개발』제1호(통권 34호), 한국교육개발원, 1986.
정기철,「시조 교육의 문제점과 학습자 감상 활동 유형 -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 <오우가>를 중심으로」,『시조학논총』제16호. 2000.
한창훈,『고전시가의 문학교육적 가치 - 《도산십이곡》을 예로하여」,『한국시가연구』제8권. 2002.
전은주,「국어과 협동 학습에 관한 인식 조사」,『새국어교육 』제73호, 2003.
Paul D. Eggen 외(임청환, 권성기 옮김),『교사를 위한 수업전략』, 시그마프레스, 2006.

- 학위 논문 -

김경옥,「고전시가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연구 - 제7차 국어(상·하) 시가 소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시용, 「고등학교 문학교과의 고려가요 교수-학습 모형연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3.
김영찬,「고전문학 교육의 지도 방향 연구 - 제7차 고등학교(10학년)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윤정, 「고전시가 교육방법 연구 -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3.
김응균,「수용미학적 접근을 통한 문학교육 방법론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대일,「고전시가 학습 지도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2004.
송교선,「고등학교 고전시가 교육 연구 - <청산별곡>,<어부사시사>,<관동별곡>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2005.
신지혜,「고전시가의 교육방법 유형과 지도안의 구성」,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2004.
안미향,「고등학교 고전시가 교육의 수용미학적 접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2004.
양미옥,「고전시가 교육방법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4.

이경숙,「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소재 고전시가 교육에 관한 연구 - 미의식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민정,「고전시가의 학습실태와 지도방안 -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2005.
이상구,「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설 문 지

다음 11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해당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 좋아하는 과목은? (***1*순위와 *2*순위를 괄호안에 숫자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경우는 과목명도 함께 써 주세요.)

① 국어 ( )
② 영어 ( )
③ 수학 ( )
④ 사회 ( )
⑤ 과학 ( )
⑥ 기타 ( ) - 과목명:_____

2. 국어 교과 영역 중 가장 관심 있는 것은? (***1*순위와 *2*순위를 괄호 안에 숫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대산문 ( )
② 현대운문 ( )
③ 고전 산문 ( )
④ 고전시가 ( )
⑤ 문법 ( )
⑥ 기타(수필, 희곡 등) ( )

3. 국어시간에 고전시가를 배우는 것에 대한 솔직한 생각은? (**하나만 선택** 해주십시오.)

① 재밌고,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② 재미는 있지만, 왜 배워야하는지는 모르겠다.
③ 재미는 없지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지루하고 어렵다. 흥미도 없다. 왜 배워야하는지 모르겠다.

4.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고전시가 작품 중 흥미 있는 것은?

(***1*순위와 *2*순위를 괄호 안에 숫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하여가 ( ) ② 단심가 ( )

③ 청산별곡 ( ) ④ 어부사시사 ( )

⑤ 사모곡 ( ) ⑥ 관동별곡 ( )

⑦ 시집살이노래 ( )

5. 4번 문항에서 그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_____

_____

6. 지금까지 받아온 고전시가의 수업방식은?

① 강의중심의 수업으로 작품 해석에 치중했다.

② 작품 감상 중심의 수업을 받았다.

③ 문답중심의 수업을 받았다.

④ 조별 활동이나 토의 중심의 수업을 받았다.

⑤ 파워포인트나 그림 등 자료 활용 중심의 수업을 받았다.

7. 고전시가 작품의 수업을 들을 때나,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순위와 *2*순위를 괄호 안에 숫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작품 해석 ( )

② 작품 감상 ( )

③ 장르에 대한 이해 - 향가, 고려 가요, 시조 등 ( )

④ 작품에서 쓰인 표현법 ( )

⑤ 문학사적 의의 ( )

⑥ 작가 및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 )

8. 고전시가 수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① 고어 및 한문표기로 인해 해석이 어렵다.

② 현재와 작품 속 배경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공감이 안 된다.

③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혼란스럽다.

④ 현재와 다른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표현법도 다르다.

⑤ 막연히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에 거부감부터 든다.

9. 고전시가를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싶습니까?

① 강의식

② 문답식- 교과 선생님과의 질문과 대답

③ 활동중심(조별학습, 토의를 통해 해석해보기 등)의 수업

④ 많은 자료를 활용(파워포인트, 그림, 영상 등)한 수업

10. 고전시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참고서와 교과서를 정독하며 암기와 병행한 학습

②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작품 해석을 통한 이해 중심의 학습

③ 친구들과 토의를 통해 이해하고 감상하는 학습

④ 인터넷 자료나 영상, 노래 등을 찾아보며 감상 중심의 학습

11. 고전시가가 시험범위로 포함되었을 때의 느낌은?

① 부담스럽다.

② 부담스럽지 않다.

12. 11번 문항에서 '부담스럽지 않다'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_____

_____

★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	학 번	20058019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박하늘	한문: 朴하늘	영문: Park Ha-neul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 1동 현대아파트 103동 1605호				
연락처	016 - 9884 - 5050	E-MAIL: 82668367@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국어교과서 수록 고전시가 지도방안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s of Classic Poetry in Korean textbook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박하늘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